

주간-중앙-엔터테인먼트 Weeklyend



1호 시범 교육발전특구 31곳... “학교 때문에 이사’ 없게 할 것”

정부는 광역시도 6곳과 기초시·군 48곳이 참여한 31개 단위를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으로 지정하면서 “학교 때문에 이사하거나 사교육을 찾을 필요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일보 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대구·경북 교육발전특구 지역인재 양성 교육혁신 박차

지역 밀착형 대학 정책 등 교육의 힘 새로운 지방시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교육청이 '지역형 명품학교'를 만들어 교육력을 제고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전했다.

지정된 지역은 여건과 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구분돼 3년 간 지역당 최대 100억원의 특별교부금과 규제 혜택을 확보한다.

■ 신청 단위 40곳 중 19곳 '선도'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지자체·교육청 신청 단위 40개 중 31개를 지정하고 나머지 9개는 예비지정한다고 밝혔다.

시범지역 지정 31곳 중 우수한 19곳은 선도지역으로 분류해 시범운영기간(3년)이 지나면 교육발전특구위원회 종합평가를 거쳐 정식 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선도지역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제주와 강원 춘천시·원주시·화천군, 충북 충주시·진천군·음성군(공동), 경북 포항시·구미시·상주시·울진군 등이다.

광역시도가 지정한 기초지자체 형태로 신청한 경북 안동시·예천군(공동), 경남 진주시·사천시·고성군·창원시·김해시·양산시·거제시·밀양시·익산시·남원시·완주군·무주군·부안군, 전남 나주시·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강진군도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이 됐다.

지정 평가를 통과했지만 하위권인 나머지 12곳은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년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인천 강화, 충북 제천·옥천·괴산, 충남 서산, 경북 칠곡·봉화, 전남 광양, 충남 아산이다.

■ 고배 9개 시군에도 '예비 지정'

정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9일까지 △ 기초지자체(1유형) △ 광역지자체(2유형) △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유형별로 공모를 받았다.

이어 지정의 합목적성,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력의 적절성, 재정 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지표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를 통해 평가했다.

유형별로는 1유형 기초지자체 30곳 중 21곳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됐고, 2유형과 3유형은 모두 지정됐다.

1유형 경기 연천군·파주시·포천시, 충북 보은군, 충남 논산시·부여군, 경북 울릉군, 경남 거창군, 전남 해남군 이상 9개 지자체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예비지정 지역은 이번 평가에서 심사위원들이 제기한 보완사항을 반영하면 오는 5~6월 진

행되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 평가하늘 낮았나...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 대학 등과 협력해 지역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을 제안하면 정부가 선정해 추진을 뒷받침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를 목표로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역에서 특정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중앙 정부에서 검토 및 지원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접경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군·옹진군, 경기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포천시·가평군·연천군) 중에서만 지정한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지역부터 집중 지원해 빠른 성과를 내고 전국적으로 확산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대입 지역인재선발전형 확대와 같은 현 정부의 주요 교육개혁 과제를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발전특구 지원서를 봐도 대부분 지자체가 윤석열 정부의 교육 분야 1호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관련 정책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신입생 선발은 제약이 있지만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형 공립고'(자공고) 지정을 신청한 특구도 많았다. 이 부총리는 "35개 자공고 제안이 있었고 그중 다지급 채택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에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지정 과정에서 지역 정주율이나 지역 내 합계출산율 상승 등의 목표치를 따로 지자체와 교육청들에게 요구하지 않았다. 중소도시와 농어촌, 구도심 등 시·군·구마다 여건 과상황이 각각 달라서다.

다만 교육부는 향후 시범지역들이 수립할 실행계획에 이를 성과지표로 포함하도록 컨설팅을 하겠다고 설명하고 있어 추후 평가지표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합계출산율 상승'을 목표로 삼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 대구,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쾌거 제5차 지방시대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구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중앙정부에서 지역인재 양

고 2.0 운영 △ABB 등 지역전략 산업 맞춤형 협약형 특성화고 운영,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체험 등 디지털 문해력 함양을 통한 디지털 인재 양성 △전국 최초 대학정책국 신설 △지역인재전형 입학 비율 80%까지 점진적 확대 △RISE, 글로벌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등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유·초·중·고 교육 전반에서 연계를 강화, 지역 인재를 양성해 나간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특구 지정은 대구교육의 우수성과 미래 교육정책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교육의 힘으로 지역 활력 회복과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대구교육청과 대구시, 9개 구군, 기업, 공공기관들이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했다.

■ 경북, 교육발전특구 8개 지역 최다 선정 경북교육청은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가 공모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 포함시 등 8개 시·군이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칠곡군, 봉화군, 울진군, 안동시, 예천군 등 8개 시·군이다.

지역별 특구 운영 과제로 포항시는 포항형 신산업 분야와 고교-대학-지역기업을 연계한 교육혁신 체계 구축 모델, 구미시는 전국 최초의 '료·보·관' 연계 및 '24시 돌봄서비스' 등 아동 중심의 신개념 돌봄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상주시는 거점형 유보통합과 늘봄 운영 모델, 칠곡군은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봉화군은 이주 사회를 대비한 이주배경 사회에 적합한 교육인프라 조성, 울진군은 특화산업(원자력, 수소) 연관 앵커 기업 확대 유치 등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방안을 제시했다.

안동시와 예천군은 K-인문교육을 통한 안동·예천형 공교육 혁신모델 정립과 지역 기반 산업(농·생명, 바이오, 문화관광 등) 연계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 각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교육발전특구 운영모형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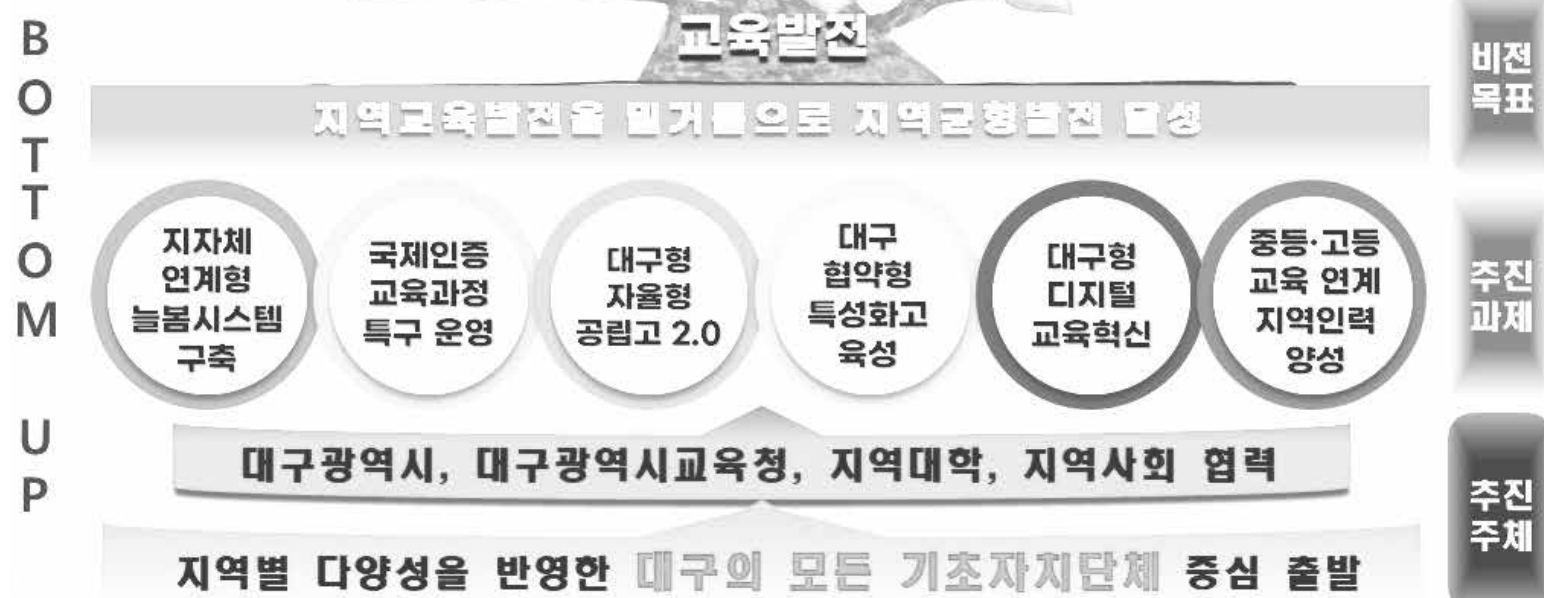
선정된 시범지역들은 3년간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교육부 특별교부금과 지역 맞춤형 특례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 전략을 연계, 지속적인 발전을 끌어내는 소임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지난해 11월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계획' 발표 이후, 많은 지역이 신청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수시 컨설팅, 협약식 등을 개최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5월부터 시작되는 2차 공모에도 많은 지역이 지원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황태용 기자



정부는 교육발전특구 운영의 첫 단추가 될 이번 첫 지정 평가에서 신청 단위 40건 중 31건이 선정됐으며, 미지정 지역도 모두 예비지정해 여지를 열어뒀다.

사실상 지원한 모든 지역이 지정된 셈인데, 교육발전특구는 특정 자원을 몰아주는 형태가 아니라라는 점에서 지정 규모를 정해두지 않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부총리는 "저희 특구는 '집약형'이 아닌 '확산형'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대한 많이, 2차 선정 때는 더 많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장려를 할 예정"이라며 "소외되는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尹정부, 대입 지역인재 확대 등 포석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 과제들을 보다

그의 국제 바칼로레아(IB), 협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기반 에듀테크 활용 등 교육부가 강조하고 있는 정책 과제도 다수 포함됐다고 한다.

대학 분야에선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맞물린 지방대 입시 지역인재선발전형에 대해서도 선발 비율과 교육, 취업으로 이어지는 대책도 다수 제출됐다.

이 부총리는 "(각 지역들이) 지역인재전형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수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략들이 담겨 있는 제안을 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들이 제시한 지역인재 전형 확대 목표치나 신입생 100% 지역인재 선발과 같은 파격적인 제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다.

■정주율, 합계출산율 성과지표는 아자...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뒤 1차 시범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별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바탕으로 특별교부금을 1곳당 30억~100억원씩 지급하고 규제 해소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제안한 특례를 반영, 가장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도 올해 안

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4대 특구 중 하나다.

지자체, 교육청, 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손을 맞잡고 지난 8일 교육부에 시범지역 지정을 공동 신청한 바 있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시범지역 지정으로 대한민국 교육수도로써 위상을 더욱 견고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늘봄마을(센터) △지역 도서관 연계한 독서활동중심 늘봄도서관 △이주배경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특화중점 늘봄 등 늘봄 서비스 모델을 다양화한다.

또한 △교육과정 자율화 △교원 자력, 채용, 전보 특례 △광역단위, 열린학교 시행으로 학생 선택권 확대 △국제인증교육 대입전형 도입 등 다양한 특례 도입을 통한 국제인증 교육과정(IB) 특구운영으로 대한민국 공교육 혁신을 지속 주도해 나간다.

아울러 △지자체, 혁신도시 기관, 지역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 강화를 통한 자율형 공립



동구청, 금호강변 빛나무길 맨발산책로 조성

동구청이 금호강변 공항교부터 율하천교 독길 일대에 조성하고 있는 맨발걷기 산책로 사업 중 일부 구간을 최근 완료했다. 이번에 일부 완료한 구간은 공항교부터 아

양교(1.17km), 아양교부터 화랑교(2.2km) 등 3.37km다. 해당 구간은 기능성 마사토를 사용한 산책로와 이벤트길, 세족장, 화장실 종합안내판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동구는 최근 건강과 관련한 맨발걷기 열풍에 발맞춰 공항교부터 율하천교 독길 일대 5.24km에 맨발걷기 산책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사업비는 총 25억이다. 잔여 구간인 화랑교부터 율하천교(1.87km) 독길은 올해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조미경 기자

홍석준 의원, 달서구갑 “불공정한 여론조사” 주장

예비후보 이름만 사용하는데 “차 전 대통령 변호인 유명하” KBS 여론조사 부당함 호소



이 의원은 “500명 대상으로 한 KBS 여론조사는 공식 타이틀을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유명하이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4·10 총선에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 갑 예비후보로 나선 홍석준(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22일 발표된 KBS대구방송총국 여론 조사가 불공정한 여론조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 공식 여론조사에서는 예비후보 이름만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KBS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유명하”로 진행했다.

홍 의원은 “500명 대상으로 한 KBS 여론조사는 공식 타이틀을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유명하이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라는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은 많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국민의 힘 달서구갑 선거구는 4·10 총선에 한이슈로 떠올랐다.

지역 주민들은 대구시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진 후보자로 선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달서갑 선거구는 당초 당초 단수공천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나 경선이 예측된 가운데 양측 예비후보들은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며 국민의 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목매고 있다.

지난 24일 대구 달서갑 지역구의 전·현직 시·구의원들은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갑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직 시·구의원으로는 손

명숙, 허만진, 이귀화 전 시의원과 허중구, 조규열, 홍성권, 방용운, 김진섭, 장태원, 안대국 전 구의원이 동참했다.

또 현직 시·구의원인 김정옥, 김기열, 서민우, 황국주, 권숙자, 도하석이 참석하거나 이름을 합

했다”며 “성서지역에 연구가 전혀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유명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성서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의원은 “공천 받았던 사람들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나쁜 정치 행태를 이번 22대 총선 경선에서 근절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직 시·구의원으로는 손명숙, 허만진, 이귀화 전 시의원과 허중구, 조규열, 홍성권, 방용운, 김진섭, 장태원, 안대국 전 구의원이 동참했다. 또 현직 시·구의원인 김정옥, 김기열, 서민우, 황국주, 권숙자, 도하석이 참석하거나 이름을 합

했다”며 “성서지역에 연구가 전혀 없고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유명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성서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홍 의원은 “공천 받았던 사람들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우리 지역사회의 나쁜 정치 행태를 이번 22대 총선 경선에서 근절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직 시·구의원으로는 손명숙, 허만진, 이귀화 전 시의원과 허중구, 조규열, 홍성권, 방용운, 김진섭, 장태원, 안대국 전 구의원이 동참했다. 또 현직 시·구의원인 김정옥, 김기열, 서민우, 황국주, 권숙자, 도하석이 참석하거나 이름을 합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직 시·구의원으로는 손명숙, 허만진, 이귀화 전 시의원과 허중구, 조규열, 홍성권, 방용운, 김진섭, 장태원, 안대국 전 구의원이 동참했다. 또 현직 시·구의원인 김정옥, 김기열, 서민우, 황국주, 권숙자, 도하석이 참석하거나 이름을 합

이날 지지선언에는 전직 시·구의원으로는 손명숙, 허만진, 이귀화 전 시의원과 허중구, 조규열, 홍성권, 방용운, 김진섭, 장태원, 안대국 전 구의원이 동참했다. 또 현직 시·구의원인 김정옥, 김기열, 서민우, 황국주, 권숙자, 도하석이 참석하거나 이름을 합

군위군 “사과·배 화상병, 꽃 피기 전 방제”

약제별 주의사항 반드시 살펴야

평년보다 따뜻한 겨울 날씨로 인해 사과와 배 휴면이 일찍 풀렸다.

이에 따라 과수 꽃 피는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여 병해충 예방을 위한 개화 전 약제 방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기상과 현재 과수 생육 상태 등을 토대로 사과 주산지인 군위군 관내 지역은 3월 4주부터 개화 전 약제 방제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는 꽃눈이 틈 직후(발아가-전엽기 사이)에 동제화합물(동제)이나 석회유황합제 중 하나를 선택해 주도록 한다. 사과는 꽃눈이 트고 녹색 잎이 피지기 직전(녹색기-전엽)에 석회보르도액 또는 동제화합물을 주는 것이

좋다. 농가는 반드시 약제별 주의 사항을 살피고,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동제화합물을 사용할 때는 석회유황합제 등 다른 약제와 섞어서 쓰거나, 동제화합물을 준 뒤에 곧바로 다른 성분의 약제를 뿌리면 과수 피해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사과, 배 개화기에 저온 피해를 심하게 입었거나 생육이 좋지 않았다면 요소 0.3%(1.5kg/500L), 붕산 0.1%(0.5kg/500L)를 개화 전 방제 약제와 함께 줘도 된다.

군위군농업기술센터 신회용 소장은 “저온 이거나 고온 조건일 때를 피하여 방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화상병 약제와 다른 약제를 혼용 살포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박재성 기자

대구 주호영·김상훈·김승수·권영진 경선 승리

국민의힘, 경북서도 현역 우세 포항북 김정재·김천 송연석 등

28일 국민의힘의 2차 경선 발표 결과, 30대 원외의 예비후보였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전봉민 의원을 경선에서 이겼다. 40대인 구자룡 비상대책위원도 현역인 조수진 전 최고위원을 이겼다.

부산 수영구 2인 경선 결과 장 전 최고위원이 현역 전봉민 의원을 눌러 공천을 받게 됐다. 서울 양천갑에서 경선을 치른 구자룡 비대위원은

조수진 전 최고위원을 이겼다. “땀방” TK(대구·경북)에서도 물갈이가 나왔다. 대구 달서병의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현역인 김용환 의원을 경선에서 눌렀다.

하지만 나머지 현역 의원들의 강세는 여전히 이어졌다. 울산 남구에서는 김기현 전 대표가 박맹우 전 울산시장을 경선에서 이기고 5선에 도전하게 됐다.

대구 수성갑에서는 5선의 주호영 의원이 승리하면서 6선을 바라보게 됐다. 부산 금정구에서는 백중현 의원이, 부산 진구에서는 이현승 의원이, 대구 북구에서는 김승수 의원, 서구에

서는 김상훈 의원이 각각 경선에서 이기며 지역 구를 수성했다.

경북 포항시 북구의 김정재 의원 역시 경선에서 이기며 3선에 도전하게 됐다. 경북 김천에서는 송연석 의원이, 경북 상주·문경에서는 임이자 의원이 각각 이번 없이 경선에서 승리했다.

관심을 끌었던 경기 분당을에서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김민수 당 대변인을 경선에서 이겼다.

경북 포항·남·울릉에서는 현역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결선 투표를 하게 됐다.

달성군,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건강 빵빵이’ 운영 등 혁신사례로

달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달성건강 빵빵이’ 운영 등 혁신 사례로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행안부 지자체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혁신에 대한 지자체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주민체감형 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국민체감도* 등 3가지 평가항목 내 10가지 세부지표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달성군은 82개 군단위 대상 평가에서 전년과 같이 2년 연속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달성건강 빵빵

이’ 운영 △외국인아동보육료 지원 사업 실시 △테크노폴리스 내 24시 응급실 운영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만들기(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사업) 등 남녀노소 불구하고 내·외국인까지 모든 군민을 위한 애자일 혁신 정책들로 평가받았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로 달성군에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적극 흡수하여 달성군화 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정책도 아낌없이 적극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달성군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 확대와 내부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전 달성군민과 달성군 직원들이 하나 되어 애자일 혁신 정책들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광주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출범...산업동맹 강화한다

당연직 6명 위촉직 22명 구성 미래 발전의 구심체 역할 기대

대구시와 광주시는 28일 달빛동맹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두 도시는 달빛동맹 강화 및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두 도시 간 교류를 확대하고 특히 달빛산업동맹 등 경제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출범식에는 대구·광주시시장의 위촉장 수여와 인사말씀, 달빛동맹 경과 및 향후 추진방향 보고 및 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인 대구·광주 시장을 비롯해 당연직 위원 6명, 철도·도로·공항 등 SOC·문화체육·CEO·청년·여성·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

과 경험을 갖춘 위촉직 위원 22명(대구·광주 각 11명)으로 총 28명 규모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달빛동맹발전위원회는 ‘대구·광주 달빛동맹 강화 및 발전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경제·산업·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구·광주 동반성장을 위한 사업 발굴과 지원, 민간교류 활성화 및 양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방안 등을 심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달빛동맹발전위원회는 현재 달빛고속화철도 건설, 문화예술 교류 등 총 5개 분야 35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달빛산업동맹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도시는 지난 7일 체결한 남부거대경제권 조성 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 도시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달빛산업동맹 TF를 공동 구성해 달빛철도 경유지의 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한편 대구시와 광주시는 2013년 3월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2·28 및 5·18 기념식 교차 참석 및 2038 회계아시안게임 공동유치 등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22년 11월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을 계기로 지난해 두 도시의 숙원이었던 대구-광주 공항특별법을 동시에 통과시켰고, 지난 1월 25일에는 대구와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라는 큰 성과를 함께 이뤄내는 쾌거를 달성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2기 달빛동맹발전위원회가 대구-광주 두 도시의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대구시와 광주시가 힘을 합쳐 거대 남부 경제권 구축을 위한 신산업벨트 조성 사업 등 달빛산업동맹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중구, 근대골목 베스트 포즈 찾기 이벤트

선물 증정...연말 수상작 전시

대구 중구는 3월부터 10월까지 근대골목(골목투어 1~5코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포즈와 소품 등을 활용해 재미있게 찍은 사진으로 이달의 베스트 포즈상을 선정하는 ‘근대골목 베스트 포즈 찾기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이벤트 참여는 근대골목(골목투어 1~5코스)에서 멋진 포즈와 다양한 소품을 활용해 사진을 촬영한 후 약령시 관광안내소(남성로 27-1) 또는 김광석길 관광안내소(달구벌대로 2238)를 방문 제출하거나 골목투어 홈페이지(www.jung.daegu.kr/new/culture) 공지사항에서 동의를 다운로드해 사진과 함께 메일(golmok3324@gmail.com)로 제출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즉석 사진인화 서비스 또는 관광홍보품을 제공하며, 사진을 해시태그(#근대골목베스트포즈찾기 등)와 함께 SNS에 업로드하면 두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계산대가 일원에서 방문객의 투표로 매월 ‘이달의 베스트 포즈상’을 선정해 수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고 연말에는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골목투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약령시 관광안내소(☎661-3324) 또는 김광석길 관광안내소(☎661-3328)로 문의하면 된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근대골목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추억을 남길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하고 중구 관광에 활기를 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동천동 통장협의회 등 3·1절 태극기 달기 운동

경주시 동천동에서는 지난 26일 제105주년 3·1절을 맞아 동천동 관내에서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천동 통장협의회, 자유총연

맹 동천분회장(최재근, 김정희), 새마을협의회(회장 이혁봉), 새마을부녀회(회장 정혜량), 체육회(회장 박동수) 등 단체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우방아파트와

푸르지오아파트 주민 및 주변 상가 주민들에게 태극기를 나눠주고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본격적인 행사 진행에 앞서 개최도시 결정을 앞두고 있는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재검토하는 다짐대회도 함께 진행했다.

경주시, 한부모가족 주거안정·경제적 자립 돕는다

누리영타운-애가원 보금자리 제공 아동양육비 21~40만원 지원 확대

경주시가 한부모 가족의 출산부터 자립까지 책임진다. 시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양육비 지원 등 2가지로 구분해 전주기에 걸쳐 이들을 지원한다. 경북 유일의 출산지원시설인 누리영타운은 이혼, 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

만자에게 최대 2년 이내 보금자리를 제공한다. 시는 올해 4억 7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통합은 영비와 특수치료·취사비는 물론 상담치료 및 진로자립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인 경주애가원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 가족에게 최대 7년 이내 삶의 터전을 제공한다. 시는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직업교육 연계, 아이 돌보미 지원, 방과후 아동지원, 자립 정착금을 지원한다.

시설지원 뿐만 아니라 아동양육비 지원도 다양하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3학년은 12월 까지 최대 22세 미만)에게는 월 21만 원을 지급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정(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0-1세 아동에게는 19만 원, 2세부터 아동에게는 14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여기에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은 월 5만 원을 추가지급

한다. 또 25-34세 이하 청년한부모 가정은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6세-고등학교 재학까지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더불어 35-39세 이하 경북청년한부모 가정의 5세 이하 아동에게는 월 10만 원, 6-18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인소자 중 만기(2년) 퇴소자에게는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동절기(11~2월)에는 세대 당 월 10만원 월동연료비와 초등학생 자녀에게는 인당 연 10만원 학습재료비, 중·고등학교 재학 자녀(교육급여 수급자 제외)에게는 인당 연 9만 3천원 학습용품비도 지원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자녀 양육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양육비와 이들의 보금자리 마련이다"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벚꽃마라톤대회' 1만2000명 달린다

참가 접수 50여일 만에 조기 마감 해외에서도 호응 끌어내 '호평' 받아

경주시는 오는 4월 6일 보문관광단지 일원에서 열리는 제31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 참가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 22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접수 시작 50여 일만에 1만 2000명이 접수하면서 조기 마감됐다. 올해 대회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와 동일하게 풀코스는 제외하고 하프코스과 10km, 5km 세 부문만 개최한다. 참가자 접수 결과, 5km는 전년 대비 88%로 다소 감소한 반면, 10km는 전년 대비 119%, 하프는 15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라톤 코스로 알려진 보문호를 가족·연인과 오래도록 뛰고 싶은 참가자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대회는 중국, 홍콩, 베트남, 방콕 등 해외 참가자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경주벚꽃마라톤대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마라톤대회로 자리매김한 것을 실감케 했다. 지난해 대회는 미국과 일본, 중국, 대만 등 19개국 1만 969명의 참가자들이 보문호반을 따라 달리며 벚꽃과 함께 장관을 연출하기도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전국 최고 수준의 대회로 발돋움하는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서 경주의 멋진 봄 정취를 만끽하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행복한 경주벚꽃마라톤대회를 위해 마지막 마라톤자가 도착선에 다다를 때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주하늘마루, 내달부터 화장로 7~8기 증설 운영

종합사공원인 경주하늘마루가 화장로 1기 증설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운영횟수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로 인해 경주하늘마루 화장로는 7기에서 8기로 늘어나 화장 운영은 하루 21-24건에서 25-28건으로 확대된다. 화장로가 1기 더 늘어난 만큼 유족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주하늘마루는 늘어하는 수요 대응을 위해 하반기 화장로 9기 증설 준공을 앞두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화장로 증설사업으로 급증하는 관내·외 화장 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할 것"이라며 "하늘마루 시설이용에 불편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들을 청취해 누구나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편안하고 위로가 되는 장례시설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경주 천북면 이모작 식량작물 특구, 농가소득 70% 향상

대규모 영농 대행시스템 구축 콩 가공·요리로 부가가치 창출

경주시는 지난해 추진한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조성사업이 농가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들녘특구 사업은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영농에서 규모화된 기업형 농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경북도 역점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천북면 일대에 벼와 콩을 재배 후 밀과 조사료를 재배하는 이모작 식량작물 특구를 조성했다. 여기에 지역 농업인 136호로부터 농지 104ha를 투자·위탁받은 광원영농조합법인은 청년농업인과 협업해 대규모 영농 대행시스템을 구축

했다. 그 결과 들녘특구에 농지를 위탁한 고령농(벼 단작 기준)의 경우 이전 개별영농(115만원/10a)보다 70% 정도 소득향상(197만원/10a)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천북면에 10억 3천만 원 투입해 경북도 육성 신 품종 두리 콩 활용 가공체험장, 저장유 통시설 조성 및 두부, 빵, 양념 등 가공 상품화 개발 등 6차 산업 융복합화를 통해 농가소득을 더욱 증대할 예정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지역 농업도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특구 사업을 통해 경주 농업이 규모화 되고 농업소득의 정체성을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운용한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Advertisement for Daegu City's population policy. It features a large graphic with the text '살고 싶은' (I want to live) and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Happy citizens, proud Daegu). The graphic is divided into sections for '도전하는 청년' (Challenging youth), '활기찬 노후' (Vibrant old age), '꿈을 키우는 아이' (Raising children), and '행복한 가정' (Happy family). At the bottom, it says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We will create a city where citizens are happy with population policy tailored to me.) The Daegu Metropolitan City logo is in the bottom right corner.

영덕 청송 영양 청도 울릉



오도창 영양군수는 오도창 영양군은 29일 오전 입암면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입암면민 화합 민속 율놀이 대회'에 참석한다.



청송군 SNS 홍보단 '은통청송' 위촉식 개최

청송군은 지난 27일 '2024 청송군 SNS 홍보단 '은통청송'(이하 홍보단)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은 홍보단 활동 안내 및 SNS 콘텐츠 제작 교육, 위촉장 수여식, 단체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작년 700여명이 공모한 온라인 이름짓기 이벤트로 선정된 '은통청송'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한 홍보단은 총 15명이다.

블로그 분야 10명, 유튜브 분야 5명으로 구성돼,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한다. 윤병문 기자



영덕,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영덕군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사업'을 지난 26일부터 시행한다.

신청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보증금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에 거주하고 청약 통장이 가입되어 있는 청년이다.

자격 요건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 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한다. 조여은 기자

제27회 영덕대게축제엔 바가지요금 절대없다

축제기간 적정 요금 준수 실천 관계자 간담회 개최

영덕군은 제27회 영덕대게축제(2.29~3.3) 개최에 앞서 지난 22일, 강구수협 본점 회의실에서 적정 요금 준수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영덕군(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해양수산과), 강구수협, 상가 대표(강구항 대게거리, 삼사해상공원),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 영덕문화관광재단 등 관계자 24명이 참석했다.

축제장과 인근 상가의 바가지요금이 축제뿐 아니라 지역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높다는 판단하에 개최된 본 간담회는 축제 기간 내 적정 요금 준수가 영덕대게의 브랜드가치를 보전하는 최우선 과제라는 점에 집중했다.

대게축제는 지역 대표 자원을 소재로 한 축제의 목적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역 브랜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그러나 바가지요금으로 영덕대게 브랜드 이미지가 나빠진다면 강구대게거리의 미래에도 치명타가 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본 회의에선 최근 이슈가 된 타 지자체의 바가지요금 관련 사건과 적정가격으로 단합해서 성공한 모범 사례 발표에 이어 질의응답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그 결과 영덕대게축제 현장 내시판가를 명시하고 상가 상인들은 적정 요금 실천 사항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축제를 만드는 데 적극 합의했다.

특히 올해 영덕대게축제는 '영덕대게는 비싸다'는 인식을 바꾸고 누구나 '영덕대게'의 맛을 거리낌 없이 접할 수 있도록, 공연과 개막식을 없애는 대신 '영덕대게'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2배 이상 늘렸다.

영덕대게나시 체험은 작년 대비 체험장 크기를

배로 확장했고 체험 기회도 1일 10회로 늘렸을 뿐 아니라 어린이 체험장도 운영한다.

또 시식용이나 체험행사에 참여하는 방문객에게 증명하는 대게의 물량도 예산을 18%로 확대 편성했다.

즉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나 빠짐없이 영덕대게를 즐기고 맛볼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축제 체험 프로그램과 강구대게거리, 축산항 구역을 함께 둘러본 관광객이 인증 스탬프를 채우면 '영덕대게' 관련 기념품을 선착순 증정하는 스탬프 투어도 진행한다. 나아가 먹거리 부스 내에는 환경보호를 위해 다화용기를 지원하고 영덕대게 홍보관을 운영, 지역민과 함께 영덕대게 자원보호를 위한 캠페인과 미디어 홍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축제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먹거리, 특산물 등 판매 부스는 신청자 본인이 운영해야 하고 부스 신청서에 명시한 판매 품목과

가격을 위반할 시 즉각적인 제재가 이뤄진다.

현재 영덕대게축제 홈페이지에는 먹거리 부스 전 품목 가격이 사전 공개되었고 읍면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먹거리 부스는 운영 회의를 통해 메뉴, 가격, 위생 관련 등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한편 축제 현장 내에는 바가지 요금 신고 시스템도 운영할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대게거리 상가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상생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며 "ESG 경영을 바탕으로,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축제로 선보이는 올해 영덕대게축제가 영덕의 대표 관광자원인 '영덕대게'의 브랜드 가치를 더 상승시키고 나아가 영덕대게축제가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는 포부를 전했다. 제27회 영덕대게축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덕대게축제 공식 홈페이지(<https://crabydfesta.kr/ko>), 영덕대게축제 인스타그램, 영덕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여은 기자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며 지키는 "청송군 명품산림"

'산소카페 청송군'을 목표로 건강하고 지속가능 산림경영

청송군은 '산소카페 청송군'을 목표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경영하기 위한 2024년 산림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해 체계적인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

총 34억 6200만 원의 예산으로 조림사업 37ha와 숲가꾸기사업(큰나무가꾸기, 공익림가꾸기, 산불예방숲가꾸기 등) 1450ha를 시행해 건강한 산림으로 육성해 탄소 흡수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각 읍·면 주요 공한지에 청송을 대표하는 소나무 및 왕벚나무 등 주요 수목을 식재하여

도시숲을 조성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보호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산불방지에 적극 대응한다.

소각산불 저감을 목표로 집중단속 및 홍보를 강화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고 산불진화회기 단독 임차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감시원 등 가용한다.

산불발생 시 신속한 진화작전을 구축해 산불방지에 적극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림을 병해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산림 병해충예찰 방제단을 운영한다.

드론을 활용한 항공예찰 등을 통해 병해충 예찰 활동을 강화해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지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한다.

산사태취약지역 내 산림유역관리사업, 사방사업 등을 시행해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예방한다.

생활권재해 위험인자를 제거 또는 정비해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관내 65본의 보호수와 보존가치가 높은 노거수의 살균처리, 외과수술 및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을 통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산림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 산주와 임업인 소득증대 및 산림휴양 문화의 가치 증진을 위해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가공 유통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한다.

영양, 어수리만 있으면 나도 임금이다.

영양군에서는 3월 중순부터 올해 첫 산나물인 어수리를 본격적으로 출하한다.

영양의 맑은 물과 공기를 잔뜩 머금고 얼어붙은 땅 밑에 숨어 있다.

봄과 함께 싹을 틔우는 어수리는 예로부터 영삼이라 하고 활액순환과 염증에 효능을 보여 한약재로 사용했고 수리상에도 올라가는 등 귀한 대접을 받았다. 어수리는 향이 좋아 고기와 함께 먹으면 느끼함을 잡아주고 섬유질이 풍부해 소화에도 도움을 줘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겹살과 찜떡궁합이다.

삼채소로 먹어도 좋지만 생채로 만든 겉절이, 샐러드도 특유의 향이 어우러져 봄철 입맛을 돋우는데 제격이고 4-5분 정도 데쳐서 만드는 어수리 무침은 별미다.

영양군에서 어수리 농장을 운영하는 정모씨(가곡리 53세, 남)는 "어수리는 매일 새벽 파서 당일 전국에 택배로 보내고 있다"라며 "맛뿐만 아니라 피부미용에도 좋아 어수리 데친 물로 매일 세수하는 것이 내 피부 비결이다"라고 밝혔다. 권윤동 기자

청도, 건강마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청도군은 지난 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도읍(유호지구), 각북면, 운문면 건강마을의 34개 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주 1회, 5회기에 걸쳐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참여 건강마을이란 건강 문제 파악·개선을 위해 주민이 직접 주도적으로 참여해 건강 수준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동시에 주민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주민 건강조직을 만드는 데 목적이 둔다.

외부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ZOOM

영양군
YEONGDEUNG-GUN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길

자연의 아름다움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

빛

자연의 아름다움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

맛

영양 특산물과 전통음식을 맛보세요

쉼

자연의 아름다움과 휴식을 위한 최적의 장소

영양 들어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뉘오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으로 오세요

김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일몰선, 선바위의 남이포, 삼의계곡, 수려계곡, 분신계곡, 천변공원, 축맥수원, 외배너선길
- 영양의 역사, 을사대비행, 서석지, 두물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갈촌마을, 갈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채박물관, 반도불이전문화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농보전사당, 말갈산자연생태관, 영양공작물전시관, 흥감산자연유원지, 안강산자연생태휴양림, 분사수사생태휴양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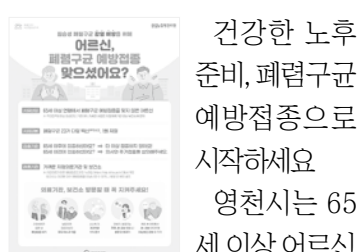
ida

영천 영주 봉화 고령 의성

최기문 영천시장은 29일 오후 2시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열리는 생도59기 졸업·입관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최정예 장교로 탄생한 졸업생들을 축하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9일(목) 오전 11시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열리는 영주택시노동조합 제32년차 정기총회에 참석한다.

영천,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실시



건강한 노후 준비, 폐렴구균 예방접종으로 시작하세요. 영천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한다. 폐렴구균에 의한 침습성 감염증은 면역력이 약해진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이다.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5세 이후 평생 한 번 접종으로 감염증을 50~80%까지 예방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올해 기준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인 65세 이상 중 폐렴구균 23가(PPSV23) 다당백신을 한번도 접종하지 않은 어르신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하면 1회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만약 65세 이전에 13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접종일로부터 1년 후, 23가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접종일로부터 5년 후 접종할 수 있다. 최은하 기자



고령군,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고령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역량, 혁신성과 등 3개 평가항목에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기관의 자율혁신 추진성과 등 10개 세부 지표를 합산해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평가결과는 우수, 보통, 미흡 3단계로 등급을 나누고, 우수기관에는 표창과 포상금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고령군은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주민소통 정책화 성과, 일하는 방식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등의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고령군은 "행정혁신을 위하여 군민과 소통하고 직원 및 전 부서가 협력한 결과이며, 혁신을 통해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배영백 기자

'봄과 함께 달린다' 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4월 7일

3월 15일까지 접수 풀·하프·10km·5km 종목

전국 10대 메이저 마라톤대회 '2024영주소백산마라톤대회'가 오는 4월 7일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다.

대회는 영주시까지를 달리는 5km, 10km와 전문마라토너를 위한 풀·하프코스 등 4개 종목으로 나눠 진행된다.

풀(FULL)코스는 영주시민운동장에서 출발해 순흥에서 단산면까지 이어지는 공인코스로 소백산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등 유서 깊은 문화유산 주변을 달린다.

참가 신청은 3월 15일까지 대회 홈페이지(sobaekmarathon.go.kr)나 운영사무국(☎02-2208-7242-3)에 하면 된다.

신체 건강한 남녀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며 참가비는 풀코스 5만원, 하프코스 4만원, 10km 3만원, 5km 2만원 등이다.

대회 사무국은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 상금과 트로피 기념품에 돼지고기, 잔치국수, 사과 등 푸짐한 먹을거리도 제공할 예정이다. 경품추첨과 레크리에이션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



리도 마련한다. 특히 서울과 인천·대구·부산·대전·울산 등에서 오는 참가자들을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마라토너들의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 완주메달

과 기록 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유튜브 라이브 중계도 진행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대회가 '사람을 살리는 산 소백산'의 봄기운을 만끽하며 일상 속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영주를 찾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대회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의성군, 봉양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현장 실사 실시

의성군이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 공모에 도전하기 위해 지난 27일 봉양농공단지 현장에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군은 의성IC와의 인접성과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의성군 봉양농공단지를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대상지로 결정해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2024년 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 통합 패키지공모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이번 군이 추진하고 있는 봉양농공단지는 지난 1994년에 조성되어 올해로 30년을 맞이하는 노후 농공단지다.

총 19만5000㎡의 면적에 24개 기업이 입주해 약 2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군은 이러한 봉양농공단지의 △대구경북신공항과의 접근성 △의성IC와의 인접도를 고려해 '의성의 관문' 역할 △주변 골포장과 연계한 유동인구 흡수 △의성 중부지역의 청년문화구심점 역할 등을 강조하며 총 60억원 규모로 현 봉양농공단지 관리동 건물에 청년문화센터를 신축하고 노후 공장의 청년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10개사)을 계획 중에 있다.

이번 현장실사에는 김주수 의성군수가 직접 참석하여 평가주제인 한국산업단지공단 관계자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동시에 경상북도 관계부서에서도 함께하여 노후농공단지 개선을 위한 의지를 강조했다.

이번 봉양농공단지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은 지난 2월 16일 신청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번 현장실사를 거쳐 3월 발표심사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공단지는 그동안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며, "노후된 농공단지를 개선하여 청년이 찾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단밀농공단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군비 42억원을 투자하여 근로자 기숙사를 건립하고, 의성농공단지에 국비지원을 포함하여 74억원을 투자해 복합지원센터와 아름다운거리를 조성하는 등, 산업환경개선과 투자유치 여건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박재성 기자

봉화군, 외국인계절근로자 귀국 후 친절에 보답

법전문 소천리 박상철 이장 초청

농촌일손 고용시 확대반은 베트남 근로자, 귀국 후 자신의 고향에 초청해 숙식 제공

외국인계절근로자사업을 통해 인연이 된 농가주와 외국인계절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도 훈훈한 관계를 유지해 화제가 되고 있다.

봉화군 법전문 박상철 이장은 지난 2월 특별한 여행을 다녀왔다.

외국인계절근로 사업으로 인연을 맺은 베트남 국적 라이 씨(남, 42세) 초청으로 일주일간 베트남 관광을 다녀온 것이다.

지난해 박 이장은 수박과 당귀 농사철에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업을 통해 라이 씨를 비롯한 9명의 베트남 근로자를 고용했다. 근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함께 했다.

휴일에는 관내 명소와 인근 지역으로 같이 여행을 다니고 송이축제에도 참여하는 등 근로 관계를 떠나진심으로 가족처럼 지냈다.

이후 베트남으로 돌아간 라이 씨는 정을 잊지 않고 박 이장을 자신의 나라로 초대해 한국에서 받았던 친절에 대해 보답했다.

박상철 이장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한 타국 근로자를 함께 일하는 동료처럼 대했을 뿐인데 잊지 않고 본인의 나라에 초대해주고 감사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김경숙 법전문장은 "문화와 언어가 서로 다르지만 마음은 통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농가주와 계절근로자의 모범사례로 전파되어 봉화군 계절근로자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봉화군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 다양한 나라와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맺어 일손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는 봉성면에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신축해 안정적으로 농가 일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상기 기자

고령군 다문화가족 '대가야의 문화에 빠지다'

고령군다문화가족센터는 지난 24일 법무부 추진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에 선발된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고령군의 대표 특산물인 딸기 수확 체험을 진행했다.

올해부터 정규화 사업으로 시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특례 비자를 발급해 지역사회 정착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으며, 다른 비자와 달리 배우자도 취업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가족들이 직접 농장을 방문해 딸기를 수확하고 직접 딸기를 맛보며 즐기는 색다른 체험을 통해 농촌문화를 이해하고 자연과 교감하며 가족 간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으로서의 성공적인 지역정착을 위해 주거정착비 지원 및 한국어교육, 정서안정지원, 생활안전교육 등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배영백 기자

의성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의성군은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4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상자를 연중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의성군에 주소를 둔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비신혼부부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주택은 의성군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이며, 최대 2억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최대 연 2.5%까지 소득구간별 차등지원하며,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건축물대장상 불법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농협은행, 대구은행) 대출 상담 후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을 통해 신청하고 군에서 발급된 추천서와 함께 협약은행에 대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의성군 복지과 희망복지팀(054-830-6321)으로 하면 된다. 박재성 기자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 7년 연속 선정

(재)영주문화관광재단

(재)영주문화관광재단이 경북문화재단 공모사업인 '2024년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예술가들에게 창작 공간과 창작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예술가를 지역으로 유치해 예술가를 통한 지역 재발견과 수준 높은 문화의 향유 기회를 지역민에게 제공하고 자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으로 재단은 도비 3천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올해 연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단은 지난해 'Artist in 148'이란 사업명에 맞게 '참신한 작가 발굴'과 '작가 역량 강화' 그리고 '작가의 주제성에 초점을 맞춰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올해도 148아트스퀘어가 가진 지역 레지던시 기능과 역할을 정착시키고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업명을 유지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아티스트'에 초점을 맞춘

△148아트스퀘어 오픈 스튜디오 운영 △평론가와 큐레이터가 함께하는 입주작가 역량 강화 워크숍 △입주작가들의 프리뷰전 △정기전 및 성과전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문화예술 소외지역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일정 체험형 예술교육 프로그램과 가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 전사해설 1회, 체험 3회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 문의는 재단문화예술팀(054-630-8714)로 하면 된다. 전상기 기자



문경시 제2민원실 '아침 민원처리제' 운영

문경시청 제2민원실은 아침을 일찍 여는 주변상가, 중앙시장, 직장인들을 위해, 3월 4일부터 매주 월요일 1시간 일찍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기본좋은 아침 민원처리제'를 운영한다.

'문경시청 제2민원실'은 민선8기 시장 공약사업 1호로, 2022년 9월 1일 노인복지관 1층에 개소해 원도심의 활력소 역할을 하고 있다.

차별화된 민원 친절 서비스로 시민들의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기본좋은 아침 민원처리제'를 통한 처리 대상 민원은 가족관계 등록부 및 제적부 증명명 발급,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상담,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본인서명 등 증명명 발급,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정부24 증명발급 민원이다.

김동수 기자



상주시, 더불어 함께하는 일터에서 삶의 활력 넘쳐

상주시는 지난 27일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3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침 및 필수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 보장을 지원코자 장애인일자리사업(행정도우미 등) 및 장애인복지일지리를 시행하고 있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근로소득활동을 통한 장애인자립지원에 이바지하고 있다.

2024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의 원활한 직무 수행 및 업무능력 함양을 위해 지침 교육과 함께 기본 필수 교육(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직무 및 직업 소양교육 등)을 실시했다.

박종욱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 교육이 일자리를 통한 사회활동으로 더욱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경호 기자

구미, 경북 최대 파크골프장양성화...3월 재개장

원상복구명령 1년 만에 양성화 총력... 225홀 재개장

경북 최대 파크골프장 225홀을 가진 구미시 파크골프장이 원상복구명령 1년 만에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온다.

구미시는 미허가 파크골프장 3개소(선산, 도개, 해평)의 양성화 절차를 완료해 3월부터 관내 전 구장(구미 63, 동락 36, 양포 18, 선산 36, 도개 36, 해평 18)의 전면 정상 운영을 재개한다.

지난해 2월 미허가 파크골프장에 대한 낙동강 유역환경청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6월부터 구미시는 파크골프장 원상복구 후 일부 코스만 임시 개장했다.

10월부터 구미, 동락, 양포구장을 조기 재개장해 정상 운영했으나, 미허가된 구장을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몰려 이용자의 민원발생으로 이어졌다.

이에 시는 중앙부처에 구장의 양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건의했고, 허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와 발 빠른 행정절차 추진으로 나머지 선산, 도개, 해평구장도 전면 양성화를 완료했다.

이번 행정절차 추진으로 구미시는 파크골프장을 전면 재개장해 현재 조성 중인 옥성구장(18홀)과 함께 전체 225홀의 경북 내 최대 파크골프장을



소유하게 됐다.

오는 3~4월 중에는 구장 시설개선을 위한 휴장을 실시해 6개 구장을 도내 최고 시설의 파크골프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2024년 파크골프장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은 총 9억 원으로 잔디 보식, 배토작업, 잔디보호 매트 및 복합잔디 설치 등에 사용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파크골프장 전면 재개장으로 파크골프장 이용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구장 정비와 이용

자 편의증진 사업을 통해 경북 최고의 파크골프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경북 파크골프장은 구미 225홀, 포항 108홀, 성주 99홀, 안동, 영천, 영덕이 각 81홀씩 보유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성주군, 이상기후 대비 참외출하 긴급 대책회의

군, 주기적 예찰로 재배관리 당부

성주군은 지난 27일 군청 문화강좌실에서 24명의 생산자(작목반), 농업인 단체 대표, 농협군지부장 및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상기후에 따른 참외출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대책회의는 계속되는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량 부족, 과습으로 참외 출하량이 감소함에 따라 참외 출하 확대방안을 마련코자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현재 추진 현황 및 대응방안을 설명한 후 긴급 대책 등을 논의했다.

군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참외 농가에 배양 미생물을 공급하고 참외 발효와 방지 기술을 홍보지도해 참외 생육을 개선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향후 출하 지연된 물량의 흉수 출하 대비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저급과 참외 불량 증가에 따른 방안도 마련하여 앞으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계속해서 흐린 날씨가 지속된다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참외 출하를 확대하고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에서 최선을 다하



고 있으니, 농가에서도 주기적인 예찰로 재배관리에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배영백 기자

제298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개최

칠곡군의회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298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칠곡군 안전 5건을 더해 총 6건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총 4명으로 구성했다.

대표위원에 구정희 의원, 위원으로 회계-재무전문가 류해열씨와 칠곡군 전(前) 공직자 박찬식·최병규씨가 선임됐다.

그 밖의 일정으로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 안전 심의가 진행되며, 3월 5일(화)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회기가 종료될 예정이다.

심정보 칠곡군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향후 실효성 갖춘 결산검사 실시와 더불어 업무추진 과정에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산불 예방활동과 강풍피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칠곡군 202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는 2024년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조미경 기자



포항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정책 펼친다

중장기 계획으로 정주 여건 개선해 지속 발전 가능한 도시 구축에 전력

포항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펼치며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임신·출산부터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를 분류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임신·출산 단계에서는 편안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및 태자기형아 검사비 지원, 유육기대여, 임신부 도서 대출 택배 서비스, 출산 힐링센터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 및 행복한 출산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제공한다.

영·유아 단계에서는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부모급여 등을 통해 양육부담을 줄이고, 영유아 건강검진, 야간·공휴일 소아응급환자 진료 지원 서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는 아동수당, 만3~5세 부모부담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등 학령기 전까지 부모들의 보육부담을 덜기 위한 경제적 지원에 더

해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용품 지원센터, 아이누리 키즈카페, 장난감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다양한 공보육 인프라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올해는 24시간 보육서비스인 '365돌봄 어린이집'을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해 긴급 상황에 대한 보육 공백 제로를 위한 포항형 영유아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의 진로 선택을 돕는 대학진학박람회, 대학 상담 캠프, 진로진학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청년 월세 및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는다. 정창명 기자

새희망, 새행운

영천 9가지 즐거움 더행복

9가지의 즐거움

영천시

 은해사	 임고서원	 보현산전문대	 치산관광지
 보현산댐짚와이어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영천댐벚꽃백리길	 영천한의마을
			 도화원길
			 별별미술마을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2025

A P

가장 한국적인
도시 경주에서

과거의 역사를
아우르고



현재의
경험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